

**1. 베어스턴스 매각 관련**

글로벌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소식이 금주 국내 주식시장에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베어스턴스 쇼크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아직은 많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 경색이 급박하고 과중한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남아 있는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결론날지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오는 18일 골드먼삭스와 리먼브러더스를 시작으로 투자은행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으로 투자은행의 실적발표가 긍정적이라면 시장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시장 조정 기조는 빠른 시간내에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증시 주요 변수	
3월 18일	골드먼삭스 실적발표, 리먼브러더스 실적발표, FOMC회의
3월 19일	모건스탠리 실적발표
3월 20일	미국 주간실업수당청구 건수, 베어스턴스 실적발표
3월 24일	미국 기존주택판매(2월)
3월 25일	미국 소비자신뢰지수(3월)

자료: 연합인포맥스, 리딩투자증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가격은 주당 약 2달러로 총 2억 7,000만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베어스턴스의 현재 시가총액인 40억달러를 감안할 때 이를 크게 밀도는 수준으로 사실상의 부도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양사는 발표문을 통해 미국 연방중앙은행이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30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 작업은 2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베어스턴스 유동성 관련 위기 파문 일지	
	6월 베어스턴스 2개 헤지펀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파산
	8월 1일 베어스턴스 공동 사장 퇴진
2007년	10월 22일 자금조달 위해 중국회사에 지분 6% 매각
	11월 15일 신용등급 강등
	12월 20일 4분기 모기지 관련 19억 달러 자산 상각, 사상 첫 적자 8억 5,400만달러 기록
	3월 10일 유동성위기 루머 확산
2008년	3월 14일 유동성 위기 인정, FRB 구제금융 지원 발표
	3월 17일 부시, 금융시장 워킹그룹 회의
	3월 18일 미국 FOMC회의, 금리인하 논의

자료: 매일경제, 리딩투자증권

## 2. 베어스턴스 사실상 부도, 금융시장의 위기 부각

미국 5위의 대형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신용경색 문제가 아니라 부도위기로 옮겨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결국 구제금융 카드를 꺼내들어 다시 재할인율을 25bp전격 인하하고, 베어스턴스에 300억달러의 유동성 지원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로 사태가 진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월가에서는 베어스턴스의 사실상 부도로 시작된 금융시장 부도위기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의견까지 나오며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악화가 극대화된 상황이다. 또한 베어스턴스 사태를 미국 금융권 연쇄 부도의 시작으로 인식하며 다음 부도가 어느 기업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8일 이후 금융기업의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제2의 베어스턴스 부도위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금리인하를 다시 한번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주말 25bp의 전격인하가 이루어졌지만 이 같은 금리인하 폭으로는 금융기관의 부도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75bp~100bp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연방중앙은행이 이미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 성장세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날짜	회사	내용
08.01.14	메릴린치	쿠웨이트 국부펀드인 쿠웨이트 투자청(KIA)에서 4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08.01.14	씨티그룹	200억달러의 추가적인 자산상각과 함께 140억 달러를 외부(중국, 쿠웨이트 등의 국부펀드)에서 긴급 수혈할 것이라고 밝힘
08.01.11	메릴린치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 손실이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
08.01.09	베어스탠스	07년 4분기 8억 5,40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 이에대한 책임으로 CEO(제임스 케인) 사임
08.01.05	S&P	65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담보부증권(CDO)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함
08.01.01	메릴린치	중국 등 신흥시장 국부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07.12.25	메릴린치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 컨설팅사 데이비스 어드바이저로부터 각각 50억 달러와 12억달러를 수혈받겠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함
07.12.23	모간스탠리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 국부펀드 외환투자공사(CIC)로부터 50억달러의 자금을 수혈받는 대신 CIC측에 지분 9.9%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넘김
07.12.11	워싱턴뮤추얼	서브프라임 부실로 16억달러의 모기지 관련 자산을 상각처리한다고 밝힘
07.12.11	UBS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중동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해 130억 스위스프랑(115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힘
07.12.10	UBS	100억달러 상당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추가 상각한 뒤 싱가포르 및 중동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매각해 11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 UBS는 지난 3분기 46억 6천만달러의 채권을 상각하였음
07.12.05	미즈호금융그룹	일본 2위의 은행인 미즈호금융그룹이 서브프라임 투자손실을 커버하기 위하여 투자은행부문에 1,500억엔(14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힘
07.11.22	GMAC	제너럴모터스의 금융 자회사 GMAC이 모기지부분 자회사 ResCap 매각작업에 들어감, ResCap은 서브프라임관련 손실로 인하여 07년 3분기 1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함
07.11.19	스위스리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로 10억 7천만달러의 대손상각을 처리한다고 밝힘
07.11.15	바클레이	07년 6~10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하여 27억달러를 상각
07.11.15	미즈호파이낸셜	07년 2분기 서브프라임 여파로 6억 3,000만엔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힘
07.11.14	BoA	07년 4분기 모기지관련 채권 손실로 30억 달러를 상각할 것이라고 밝힘
07.11.10	와코비아	6억달러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을 것이라고 밝힘
07.11.10	패니매	07년 3분기 순손실이 13억 9천만달러에 달함
07.11.12	HSBC	07년 3분기 10억달러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함
07.11.07	모간스탠리	모기지 채권관련 손실 60억 달러를 대손 처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보도
07.11.02	크레딧스위스	07년 3분기 19억달러어치의 모기지 관련 자산을 상각

자료: 각 신문참고, 리딩투자증권